

alico tours
México

DMC | MICE



멕시코 알리코 투어

1989년부터 쌓아온 경력을 뒷받침하고 있는 최고의 여행수용 오퍼레이터. 알리코 투어는 여행 전문가들이 신중하고 능동적인 지역 오퍼레이터들에게 창의력있고 빠른 제안을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저희가 하는 일입니다. 고객에 꼭 맞는 상품을 디자인하고, 획기적인 여행루트를 제공하며 방대한 서비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2

알리코 투어일동

멕시코란?

오감을 자극하는 멕시코

- 멕시코 여행 프로그램은 관광객들에게 사업 또는 다른 어떤 목적의 여행에도 완벽한 무대를 제공합니다.
- 멕시코의 1 964 375 kms² 이상의 면적과 스페인계 혼혈과 원주민을 포함해 110,000,000명이 넘는 인구, 풍경, 역사, 문화, 맛과 색은 귀하의 마음과 영혼에 잊혀지지 않을 추억을 남길 것입니다.
- 맑고 푸른 아름다운 바다에서 수영을 하고, 피라미드에 올라가고, 식민지 도시를 방문하고, 신기한 인디언 마을을 구경하거나 섬세하고 아름다운 공예품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게다가, 멕시코의 요리는 최고로 우아하기로 유명하며, 특히 미초아칸의 요리는 2008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3



여행 정보



4

기후: 열대숲, 사막, 계곡과 눈부신 산. 해안의 기후는 대체로 따뜻하지만 비가 많이 오는 달이 있다.

행정절차(세관): 유효한 미국 비자를 소유한 외국인 또는 국경 자유 통행 지역(Schengen 지역) 국가의 거주자는 멕시코에 무비자로 입국 가능하다. 다른 국가의 국민은 해당 멕시코 대사관에 연락을 해야 한다.

빠른 정보

국어: 스페인어

화폐: 페소

국가번호: +52

인터넷도메인: .mx

시간대: 중앙: UTC -6 | 남동: UTC -5 태평양: UTC -7 | 북서: UTC -8

팁: 식사나 음료를 주문하고 나서 10%~15%를 주는 것이 기본이다

alico tours
México

DMC | MICE

www.alico.com.mx | alico@alico.com.mx

목차

지역 식도락	6
화려한 시장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요리법	
테킬라와 메스칼	
멕시코산 와인	
유일무이한 경험	7-8
고래상어와 수영	
모나르카 나비의 이동	
루차 리브레	
죽은 자의 날 전통	
테오티우아칸에서 열기구 타기	
전통 약재로 몸과 마음을 정화하는 테마스칼 (사우나) 의식	
개인 숙박	
여행지	
멕시코 주요 여행 경로	9
중앙 지역	10
라 루타 데 라 페 (La Ruta de la Fe : 믿음의 길)	
남동 지역	12
유카탄 반도	
태평양 지역	14
테킬라와 푸에르토 바야르타 지역	
북쪽 지역	16
카논 델 코브레 (Cañón del cobre: 동(銅)의 계곡)	
다지역 프로그램	
아즈텍, 마야와 손 쿠바노	18
메소아메리카 발견하기	21

5

지역 식도락 문화

멕시코의 시장은 멕시코 고유의 민속 문화가 녹아 들어 있는 전통입니다. 시장 방문은 본격 없는 새로운 경험으로 남을 것입니다. 멕시코 최고의 시장은 다음 지역에 있습니다:

- 멕시코 시티
- 푸에블라
- 와하까



화려한 시장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 요리법을 배울 수 있는 요리수업

멕시코의 요리만큼 다양하고 특별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전통요리 전문가들이 방문자들을 따뜻하게 맞고 전통을 나눕니다.

멕시코 최고의 요리수업은 다음 지역에서 수강할 수 있습니다:

- 멕시코 시티
- 푸에블라
- 과달라하라
- 와하까
- 메리다

6

테킬라만큼 멕시코를 잘 표현하는 것이 있을까요. 그로부터 탄생한 것이 바로 메스칼, 야생 아가베 선인장을 수공업한 음료로써, 메뚜기와 마게이 애벌레 소금과 곁들이면 맛이 아주 좋습니다.

테킬라와 메스칼의 제조과정을 볼 수 있는 곳:

- 과달라하라와 테킬라 루트
- 와하까와 메스칼 루트



테킬라와 메스칼



멕시코산 와인

멕시코의 북쪽에는 중앙지역이나 남쪽과는 색다른 풍경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 매력은 세계적으로 셰프들사이에서도 유명합니다.

최고의 멕시코산 와인을 맛 볼 수 있는 곳:

- 바에 데 과달루페 (바하 칼리포니아)

유일무이한 경험



고래상어와 수영하기

매년 7~8월 사이에 멕시코에 방문하는 거대한 방문객은 바로 고래상어입니다. 여과과정으로 영양분을 섭취하는 동물로써, 사냥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고래상어는 굉장히 온순한 동물입니다.

위치: 홀복스 섬, 키타나 로 라 파스, 바하 칼리포니아

색색깔의 가면, 화려한 복장으로 공중제비를 보여주는 루차도레스는 선과 악의 영원한 대조를 표현합니다.

위치: 멕시코 시티



루차 리브레

7



모나르카 나비의 이동

매년 가을이 되면, 미국과 캐나다를 거쳐서 모나르카 나비가 멕시코 숲으로 이동하는, 일년 중 가장 아름다운 행사가 시작됩니다.

위치: 시타쿠아로, 미초아칸 그리고 에스타도 데 메히코

멕시코의 가장 놀라운 전통이라하면 바로 “죽은 자의 날”. 특히 푸레페차 민족들에게 이 날이 갖는 의미는 더 깊습니다. 매년 11월 1~일은 죽은 자들의 무덤과 제삿상을 화려하게 꾸미고 그들의 “방문”을 기다립니다.

위치: 팟츠쿠아로, 미초아칸



죽은 자의 날 전통

유일무이한 경험

잊을 수 없는 경관을 자랑하는 위대한 테오티우아칸의 피라미드를 방문하고, 열기구로 또 다시 경관을 눈에 담아 가십시오.

위치: 테오티우아칸, 에스타도 데 메히코



테오티우아칸에서 열기구 타기



스페인 정복과 문명 이전부터 내려오는 전통 의식인 테마스칼은 진흙으로 지은 집안에서 물을 뿌린 뜨거운 돌에서 나오는 40도정도 되는 뜨거운 증기를 쐬는 것입니다.

위치: 여러 지역

테마스칼: 멕시코식 영혼 치유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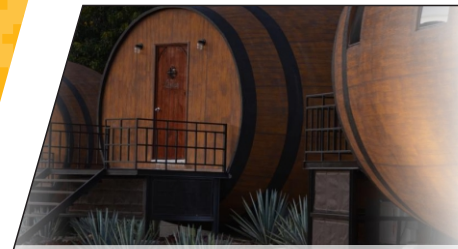
8

아씨엔다는 멕시코 문화와 역사에 빠질 수 없는 요소로서 그 건축성과 전통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비밀을 담고 있는 건축물입니다.

위치: 할리스코, 모렐로스, 유카탄



아씨엔다



호텔-바리카

아가베 선인장 밭속에 있는 부티크 호텔. 17세기말에 지어진 테킬라 농장의 중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위치: 테킬라, 할리스코

북쪽 지역

중앙 지역

태평양지역

남쪽/남동쪽

9

멕시코 주요 여행지

중앙지역

라루타 데 라 페 (믿음의 길) 7일



10

첫째 날 / 멕시코 시티 도착

멕시코 시티공항 도착, 함께 호텔로 이동

둘째 날 / 멕시코 시티 - 과달루페 대성당 - 테오티우아칸

아침 일찍 과달루페 대성당에서 미사 참가. 테오티우아칸으로 이동. 멕시코시티로 복귀.

셋째 날 / 멕시코 시티 - 틀락스칼라 - 출롤라 - 푸에블라 - 멕시코 시티

El Santuario de Nuestra señora de Ocotlán (오코틀란 성모의 신전). 산토 도밍고, 로사리오 예배당 방문 및 미사 참가. 그리고 출롤라로 이동하여 피라미드 위에 지어진 Nuestra Señora de los Remedios (치유의 성모) 성당 방문. 멕시코 시티로 복귀.

라루타 데 라 페 (믿음의 길) 7일

넷째 날 / 멕시코 시티 - 실라오 - 과나후아토

아침 일찍 실라오로 출발. 쿠빌레테 언덕과 그리스도 왕 기념비 방문. 기념비의 고귀한 아름다움 외에도 산으로 가는 길의 멋진 풍경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과나후아토에서 숙박.

다섯째 날 / 과나후아토 - 돌로레스 - 산 미겔 데 아엔데

과나후아토에서 미라 박물관 방문. 전망대와 피필라 기념비 답사. 돌로레스 이달고와 산 미겔 데 아엔데 방향으로 출발. 멕시코의 독립을 선언했던 장소인 성당과 호세 알프레도 히메네스 능(陵) 방문. 산 미겔 데 아엔데에서 숙박.

여섯째 날 / 산 미겔 데 아엔데 - 멕시코 시티

성 미겔 대천사 교구 방문. 성 프란시스코 성당, 성 펠리페 네리 기도소, 아토토닐코 성지 방문. 멕시코 시티로 복귀.

일곱째 날 / 멕시코 시티 - 출국

출국하기 전, 도시의 시내로 가서 국립 고궁, 메트로폴리타나 성 그리고 소칼로 광장 방문.

11



남쪽/남동쪽

유카탄 반도 / 7일



12

첫째 날 / 도착 - 칸쿤 - 치첸 잇싸

칸쿤 공항 도착. 함께 치첸 잇싸로 이동. 치첸에서 숙박.

둘째 날 / 치첸 잇싸 - 익킬 - 이싸말 - 메리다

치첸 잇싸 방문. 쿠쿨칸 피라미드의 비밀을 발견해 보십시오. 익킬 천연 지하 저수지로 이동. 노오랑고 신비로운 마을, 이싸말로 출발. 메리다로 이동해서 호텔에서 숙박.

셋째 날 / 메리다 - 셀레스톤 - 메리다

분홍 플라밍고의 서식지, 셀레스톤으로 출발. 메리다로 돌아와서 호텔에서 숙박.

넷째 날 / 메리다 - 옥쓰말 - 캄페체

고고학적인 지역, 옥쓰말로 출발. 캄페체에서 숙박.

alico-tours
Mexico

DMC | MICE

www.alico.com.mx | alico@alico.com.mx

유카탄 반도 / 7일

다섯째 날 / 캄페체 - 칼락물 - 체투말

열대 숲에 위치한 중요한 마야 유적 칼락물로 일찍 출발. 체투말로
이어서 이동.

여섯째 날 / 체투말 - 바칼라르 - 툴룸 - 칸쿤

7가지색의 호수라고도 불리는 바칼라르 호수로 출발. 그리고 바
닷가 바로 옆에 위치한 유일한 유적지 툴룸으로 이동. 칸쿤에서 숙
박.

일곱째 날 / 칸쿤 - 출국

귀국행 비행기를 타러 칸쿤 공항으로 이동.



13

태평양지역

마리아치와 함께하는 테킬라 / 7일



14

첫째 날 / 도착 - 과달라하라

과달라하라 공항 도착 후 호텔로 이동.

둘째 날 / 과달라하라 - 틀라케파케 - 과달라하라

과달라하라와 틀라케파케 방문. 데고야도 극장, 시내 대성당, 아르마스 광장 그리고 빠질 수 없는 산 후안 데 디오스 시장 방문. 그후에 틀라케파케의 골목길과 공예품을 구경하러 이동.

셋째 날 / 과달라하라 - 차팔라 - 마사미틀라

오전에는 테킬라 잔 (카바지토) 공장 방문. 차팔라 호수로 이동해서 "Sangrita de la Casa Tres Generaciones"(삼대 전통의 상그리타) 공장 방문. 그리고 차팔라의 유일한 멸치 가공업체 "Productos del Lago" 방문. 마사미틀라로 이동해서 오후에는 마을 방문 및 자유 활동.

마리아치와 함께하는 테킬라 / 7일

넷째 날 / 마사미틀라 - 테킬라

“Fabrica de Cajeta, Chongos y Rompope Mazamitla” 카헤타 (산양 젓과자), 총고스 (빵, 우유, 시럽으로 만든 과자), 롬포페 (증류주, 우유, 달걀, 설탕 및 계피로 제조한 음료) 공장 방문. 마법같은 마을 테킬라로 출발.

증류소와 술통 공장 방문. 테킬라에서 숙박.

다섯째 날 / 테킬라

말을 타고 아가베 밭 산책.

여섯째 날 / 테킬라 - 푸에르토 바야르타

푸에르토 바야르타로 이동해서 바갓가에서 휴식.

일곱째 날 / 푸에르토 바야르타 - 출국

푸에르토 바야르타 공항으로 이동해서 귀국하는 비행기 탑승.

15



북쪽 지역

카논 델 코브레 (Cañón del cobre: 동(銅)의 계곡) | 6일



16

첫째 날 / 로스 모치스

모치스 도착, 휴식.

둘째 날 / 로스 모치스 - 포사다 바랑카스

오전 5시 체페 기차를 타고 포사다 바랑카스로 이동. 도착 후, 계곡 방문. 지역 주민들의 가정 방문, 사진 촬영.

셋째 날 / 포사다 바랑카스 - 크릴

피에드라 볼라다 답사. 또는 계곡 위로 지나가는 케이블 카 타기. 바랑카스도 돌아와서 크릴행 기차 탑승 위해 역으로 이동.

넷째 날 / 크릴

오전에는 코끼리 바위 방문, 아라레코 호수, 산 이그나시오 성당, 꾸사라레 폭포 방문.

카논 델 코브레 (Cañón del cobre: 동(銅)의 계곡) | 6일

다섯째 날 / 치와와

오후에 치와와행 기차 탑승 위해 역으로 이동. 치와와 예상 도착시간은 20:54.

여섯째 날 / 치와와 - 출국

귀국 비행기를 타기 위해 공항으로 이동.



17

다지역 프로그램

아즈텍, 마야 그리고 손 쿠바노 / 11일
매주 화요일 출발



18

첫째 날 / 멕시코 시티 - 도착

멕시코 시티 공항 도착. 호텔로 이동.

둘째 날 / 멕시코 시티 - 테오티우아칸 - 멕시코 시티

과달루페 대성당, 세 문화 광장 방문. 그리고 테오티쿠아칸으로 이동, 답사. 멕시코 시티로 복귀 후 호텔에서 숙박.

셋째 날 / 멕시코 시티 - 메리다

메리다 행 비행기 탑승 위해 공항으로 이동. 메리다 도착 후 호텔로 가서 휴식.

넷째 날 / 메리다 - 셀레스톤 - 메리다

분홍 플라밍고 및 여러 조류 서식지인 셀레스톤 자연 보호 지역 방문. 메리다로 돌아와서 호텔에서 휴식.

alico tours
México

DMC | MICE

www.alico.com.mx | alico@alico.com.mx

아즈텍, 마야 그리고 손 쿠바노 / 11일 매주 화요일 출발

다섯째 날 / 메리다 - 치첸 잇싸 - 칸쿤

치첸 잇싸로 이동해서 유적지 방문. 그리고 칸쿤의 해당 호텔에서 휴식.

여섯째 날 / 칸쿤 - 하바나

하바나로 가는 비행기를 제시간에 타기 위해 일찍 공항으로 출발. 도착해서 호텔로 이동 후 휴식.

일곱째 날 / 하바나 - 씨엔푸에고스

씨엔푸에고스로 출발. 토마스 테리 극장, 바예 궁 방문. 오후에는 아름다운 씨엔푸에고스 바다 방문. 호텔 근처에서 저녁식사.

여덟째 날 / 씨엔푸에고스 - 트니리닷 - 상티 스피리투스

트니리닷으로 이동. 로맨스 박물관 과 라 깐찬차라 바 방문. 그리고 상티 스피리투스로 이동 후 근처에서 숙박 및 저녁 식사.

아홉째 날 / 상티 스피리투스 - 산타 클라라

산타 클라라로 이동. 타바코 재배지를 지나 마니카라구아를 통해서 에스캄브라이 산 등산. 하나바니아 호수 산책. 산타 클라라에서 숙박.

열째 날 / 산타 클라라 - 바라데로

산타 클라라 마을 관광. 카르멘 공원, 레온시오 비달 공원 방문. 에르네스토 체 게바라 광장에서 Tren Blindado(장갑 열차) 기념 동상 방문. 근처에서 식사 후 바라데로로 이동한 다음 저녁에는 호텔에서 휴식.

열한번째 날 / 바라데로 - 출국

귀국행 비행기 탑승 위해 하바나 공항으로 이동.

19

아즈텍, 마야 그리고 손 쿠바노 / 11일
매주 화요일 출발

20



alico tours
México

DMC | MICE

www.alico.com.mx | alico@alico.com.mx

메소아메리카 발견 / 17일 수요일



첫째 날 / 도착 - 멕시코 시티

멕시코 시티 도착 후 호텔로 이동.

둘째 날 / 멕시코 시티 - 테오티우아칸 - 멕시코 시티

과달루페 대성당, 세 문화 광장 방문. 그 후 테오티우아칸으로 이동. 멕시코 시티로 복귀.

셋째 날 / 멕시코 시티 - 푸에블라 - 멕시코 시티

성녀 마리아 토난친틀라의 마을과 성당을 방문하기 위해 푸에블라로 출발. 그리고 출몰라로 이동하고 마지막으로 로사리오 예배당, 산토 도밍고 성당 그리고 산타 모니카 성당의 도시, 푸에블라로 이동.

넷째 날 / 멕시코 시티 - 과테말라

과테말라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공항으로 이동. 과테말라 도착 후 호텔로 이동.

메소아메리카 발견 / 17일

수요일

다섯째 날 / 과테말라 - 치치카스테낭고 - 아티틀란 호수

치치카스테낭고 시장으로 출발. 산토 토마스 성당 방문 후 아티틀란 호수로 이동. 파나하첼 풍경 감상.

여섯째 날 / 산티아고 아티틀란 - 파나하첼 - 안티구아

배를 타고 아티틀란 호수를 거닌 후, 오후에는 안티구아 과테날라로 이동해서 휴식.

일곱째 날 - 안티구아 과테말라

하루종일 안티구아 관광. 산 안토니오 데 아구아스깔리엔떼스 과 씨우닷 비에하 방문.

22

여덟째 날 / 안티구아 과테말라 - 공항 - 플로레스 - 티칼 - 플로레스

04:00 시에 플로레스 행 비행기를 타러 공항으로 이동. 도착 후 티칼 방문. 시간이 되면 호텔로 이동 후 휴식.

아홉째 날 / 플로레스 - 리오 들세 또는 마리스코스

리오 들세로 이동. 캐리비언 해적들을 피해 지내던 항해자들의 피난처였던 푸에르테 델 산 펠리페 방문. 리빙스톤에 도착. 캐리비언 분위기가 물씬 나는 동네의 골목들 산책.

열째 날 / 리오 들세 또는 마리스코스 - 키리구아 - 코판

모랄레스 지역의 바나나 재배 지역을 지나서 키리구아 방문. 계속해서 코판(온두라스)로 가기 위해 플로리도 국경지역으로 이동. 휴식.

메소아메리카 발견 / 17일

수요일

열한번째 날 / 코판

벽화 박물관과 주요 유적지 방문. 오후는 자유활동.

열두번째 날 / 코판 - 산타 아나 - 호야 데 세렌 - 산 살바도르

코판에서 아침 일찍 출발하여 산 살바도르 쪽으로 이동. 산나 아나 루트와 호야 데 세렌 방문. 산 살바도르로 이동

열세번째 날 / 산 살바도르 - 호야 - 수치토토 - 라 우니온

산 살바도르 방문 및 수치토토 식민지 지역 답사. 오후에는 라 우니온으로 이동.

열네번째 날 / 라 우니온 - 폰세카 만(灣) - 레온

T지방 자치 부두로 이동해서 폰세카 만(灣)을 향해. 포토시에 도착해서 니카라과 국경에서 입국 수속. 레온으로 이동.

열다섯째 날 / 레온

라 레꼴렉시온, 엘 칼바리오, 라 카테드랄을 방문할 도시 방문. 오후는 자유활동.

열여섯째 날 / 레온 - 마사야 - 그라나다

오후에는 그라나다로 이동. 오전에는 마사야 화산 방문. 그라나다로 돌아가서 식민지 시절 도시 답사.

열일곱째 날 / 그라나다 - 출국

귀국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공항으로 이동.



23



“Because we want a better world”